부동산시장 동향 <Summary>

[주거용 부동산 시장]

- 주택가격: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상승세 지속
 -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및 비아파트에서도 상승폭 확대
 -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주택거래** : 주택매매거래 3개월째 8.9만호, 대구 거래량 감소세 뚜렷
 -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반적인 거래량은 낮은 수준은 아니나 대구는 지난해 대비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
 - 8월 미분양아파트는 약 1.4만호로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대구는 큰 폭으로 증가
- 주택공급: 서울, 울산 등 지역에서 기록적인 청약경쟁률 기록
 - 분양시장, 대기물량은 많으나 분양은 수요에 못 미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 9월 입주물량은 약 1.7만호로 수도권에서 크게 감소
- **토지**:8월 전국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36% 상승하며 상승추세 회복
 - 전국 토지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 호황과 함께 인천에서 높은 상승률 기록
 - 토지거래량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소폭 증가세
- **주택금융** : 1~8월 주담대 순증 규모 역대 최대, 대출금리 상승세 지속
 - 8월까지 주담대 순증액은 57.5조원으로 2015년 48.6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
 -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7bp 상승한 2.88%로 최근 3개월간 19bp 상승

[상업용 부동산 시장]

- 오피스 :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던 지방광역시 오피스 수익률 회복 추세
 - 코로나19 직후 크게 감소하였던 투자수익률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회복하고 공실률도 하락
- **상가** :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지속되며 상가 거래 크게 증가
 - 상가 거래 크게 늘고 수도권과 일반상가를 중심으로 평균 거래가격도 상승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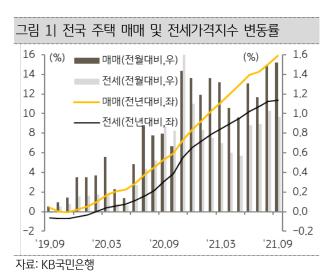
[해외 부동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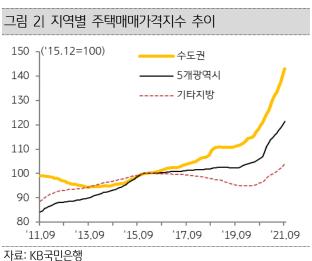
- 미국주택 : 미국 정부, 주택가격 지속 상승에 대응하여 공급 대책 제시
 - 향후 3년간 주택 10만채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급 계획 물량은 미미하다는 평가
- **호주주택** :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심사기준 강화
 - 호주의 총 주택 가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강화 방침을 통보

[주택 가격]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되나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

■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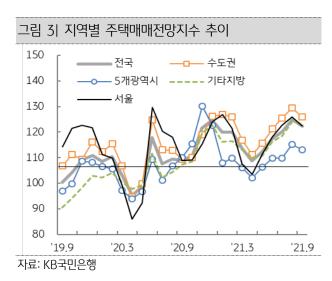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1.5%)은 3분기 4%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세 지속
 - 수도권(1.9%)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역시(1.0%) 및 기타지방(1.1%) 등 전체적인 상 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독·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의 상승폭도 전월대비 확대
- 전세가격(0.9%)은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서울과 대전 등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됨에 따라 3 분기까지 누적 상승률 7.5%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연간 상승률(6.5%)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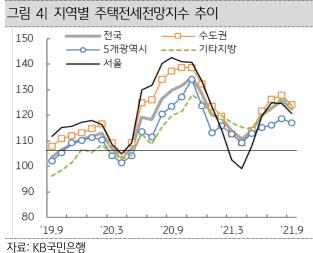




■ 9월 KB부동산 매매/전세전망지수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

○ 상승세가 지속되는 매매 및 전세가격과는 달리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 기대감은 일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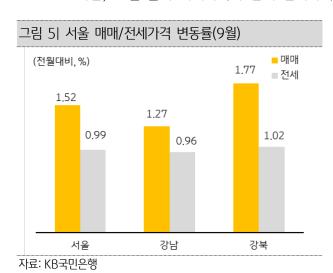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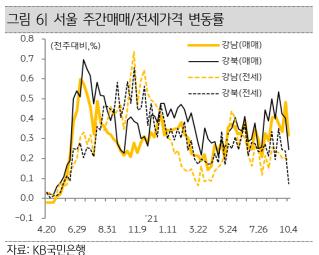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택 가격]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상승세 지속

■ (서울) 비아파트의 매매가격 강세,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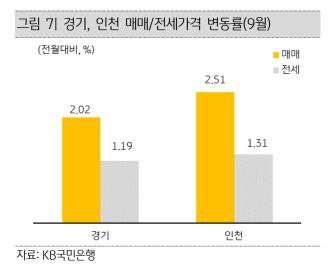
-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과 비아파트들의 강세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강북권의 노·도·강(노원 2.5%, 도봉 2.6%, 강북 3.9%)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단독(0.9%) 및 연립주택(1.4%)의 상승률은 전월대비 약 2배 확대
- 전세가격은 학군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 지속
 - 양천구(2.4%), 노원구(1.7%), 강남구(1.1%) 등에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다만, 10월 들어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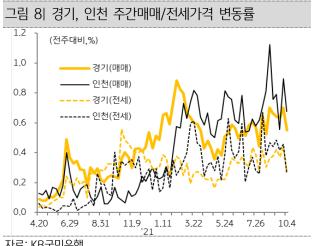




■ (경기, 인천) 매매가격, 월평균 2%대의 높은 상승률 지속

- 경기는 전월대비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8월말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이후 경기 남부권(시흥 3.3%, 군포 3.2%, 화성 2.9%)에서 높은 상승률 기록
- 송도 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4.3%)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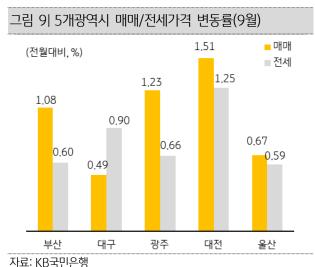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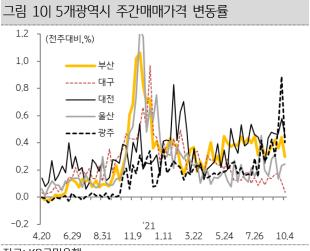


[주택 가격] (비수도권) 광역시 상승세 지속되는 가운데 기타지방도 상승폭 확대

■ (5개광역시) 대전과 부산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전년대비 가격은 부담스러운 상황

- 2분기 이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던 부산과 대전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던 광주의 상승폭이 확대
- 상승세가 둔화되던 대구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말 이후 5개광역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5개광역시는 전년대비 14.2%의 높은 상승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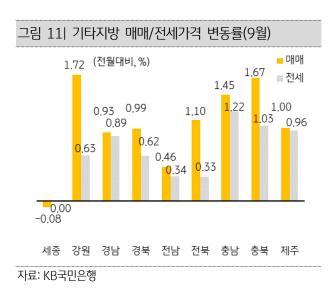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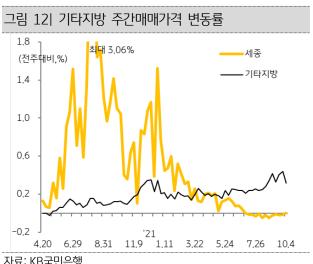


자료: KB국민은행

■ (기타지방) 세종 2개월 연속 하락세. 기타지방 상승률 1.1%

- 세종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하락폭이 둔화
- 기타지방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6월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가 넘는 상승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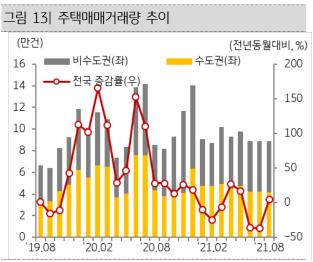


자료: KB국민은행

[주택 거래] 주택매매거래 3개월째 8.9만호, 대구 거래량 감소세 뚜렷

■ 주택매매거래는 3개월째 비슷한 수준, 직전 1년 평균대비로는 8.3% 감소

-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만 9.057호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 직전 1년 평균 대비로는 8.3%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수도권(-7.9%)과 비수도권(-8.7%) 모두 비슷한 수준
- 주택매매거래는 9개월째 8만 9천호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거래량은 낮은 수준은 아니나 대구는 지난해 대비 거래량 감소세가 뚜렷



자료: 부동산통계정보 R-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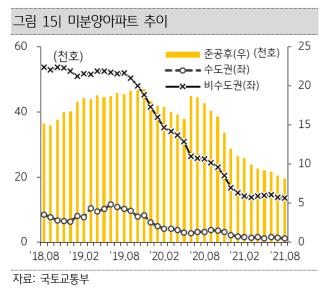
그림 14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 증감률(8월) 25 (직전 1년 평균대비,%) 10 -2 -3 -8 -12

라 다 점 尽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 나 다 된 다 나 다 된 다 나 다 된 다 나

자료: 부동산통계정보 R-ONE

■ 미분양아파트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대구는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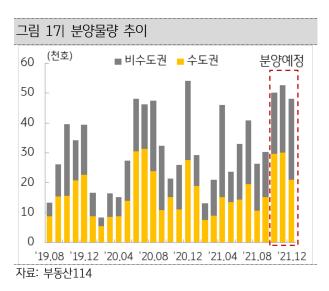
- 8월 미분양아파트는 1만 4,864호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
 -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최근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대구 지역은 1천호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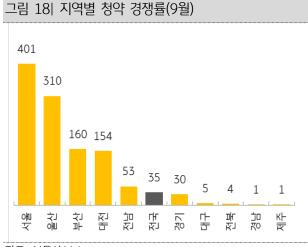


[주택 공급] 서울, 울산 등 지역에서 기록적인 청약경쟁률 기록

■ 분양시장, 대기물량은 많으나 분양은 수요에 못 미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 9월 분양물량은 약 3.0만호 기록, 전월대비 15.2%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6.6% 감소
 - •올해 1~9월 분양물량은 약 26.4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만호)과 유사한 수준이나 수도 권의 경우 12.4만호로 같은 기간 대비 약 13% 감소
- 9월 청약경쟁률은 35:1을 기록했으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울산은 100:1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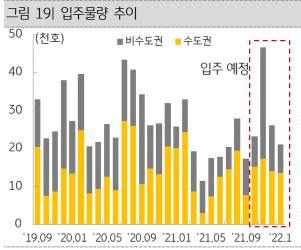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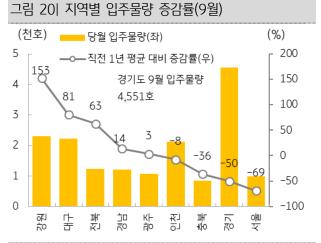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 9월 입주물량 수도권에서 크게 감소

- 9월 입주물량은 약 1.7만호로 직전 1년 평균 대비 28.9% 감소
 - •하반기 입주물량은 11월에 집중되면서 9월 입주물량은 2만호를 하회
 - •지역별로는 직전 1년 평균 대비 수도권(-45.6%)이 비수도권(-6.1%) 대비 크게 감소



자료: 부동산114



주: 입주물량이 없는 지역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부동산114

[토지] 전국 토지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주지역 빠르게 회복

■ 8월 전국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36% 상승하며 상승추세 지속

- 전국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역 회복세 뚜렷
 -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제주지역은 올해 3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상승세 시현, 특히 8월 0.35% 상승하며 33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한편 최근 주택시장 호황과 함께 인천 토지가격도 높은 상승률 기록(2020년 월평균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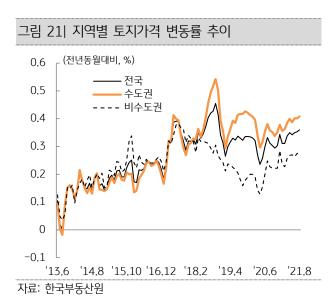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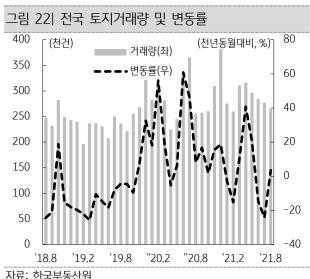


표 1 지역별 토지가격 변동률(%)(8월)						
전국	0.36	경기	0.38			
서울	0.43	강원	0.27			
부산	0.35	충북	0.26			
대구	0.37	충남	0.24			
인천	0.39	전북	0.20			
광주	0.29	전남	0.31			
대전	0.37	경북	0.19			
울산	0.17	경남	0.20			
세종	0.50	제주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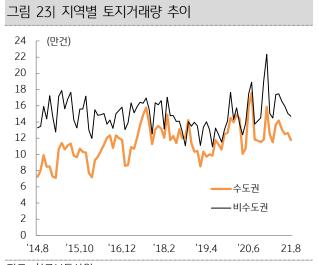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 8월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총 26.5만건으로 전월대비 4.4% 감소

- 토지거래량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소폭 증가세
 - 수도권 11.8만 건, 비수도권 14.7만 건으로 과거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각각 16%, 3% 증가한 수준 으로 거래시장은 활발할 편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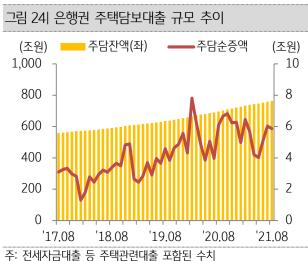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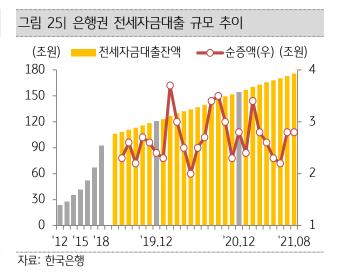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 금융] 1~8월까지 주담대 순증 규모 역대 최대. 대출금리 상승세 지속

■ (대출 규모) 8월까지 주담대 순증액 규모가 높게 유지되면서 대출 총량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포함) 8월 순증액은 5.9조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 •8월까지 대출 순증액은 57.5조원으로 2015년 48.6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
 - •다만, 전년말대비 증가율로는 2021년 8월 5.82%로 2015년 8월 8.66%에 비해 낮은 수준
- 8월 전세자금대출 순증액은 전월과 동일한 2.8조원으로 최근 2년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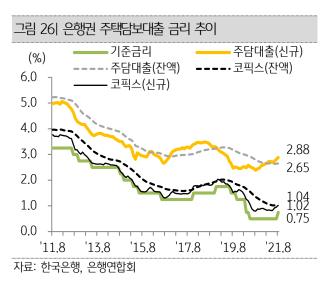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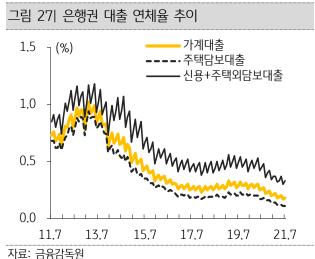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금리, 연체율) 대출금리 본격적인 상승세,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 지속

- 8월 주담대 신규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7bp 상승한 2.88%로 최근 3개월간 19bp 상승
 -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조달금리(코픽스)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세 지속 전망
- 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역대 최저 수준 지속





[오피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던 지방광역시 오피스 수익률 회복 추세

■ 지방광역시의 2분기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대체로 크게 상승

- 지방광역시 오피스빌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자본수익률이 크게 낮아졌으나. 약 1년이 경과한 현재 대부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지난해 팬데믹 확산에 따른 불안감 확대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오피스 가격이 백신 공급 등 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시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 시현
- 자본수익률의 상승에 따라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 역시 전년동기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281 지방광역시 오피스 자본수익률 증감 ■ 2019.2Q ■ 2020.2Q ■ 2021.2Q 2 (%) 1.5 1 () 0.5 0.0-0.5 대구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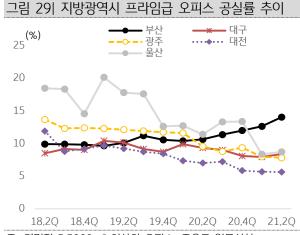
주: 자본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의 가격 변동 수준을 의미 자료: 한국부동산원

표 21 지방광역시 오피스 투자수익률 증감 투자수익률 변동 구분 (B-A, %p) 2020.20(A) 2021.20(B) 부산 0.56 1.91 1.35 대구 1.03 1.91 88.0 광주 0.97 0.47 1.45 대전 0.52 2.17 1.65 울산 0.72 2.3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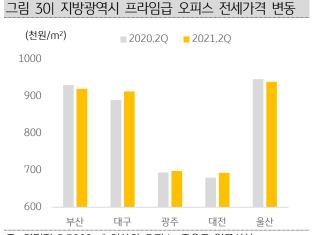
주: 투자수익률은 자본수익률과 소득수익률의 합 자료: 한국부동산원

■ 부산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프라임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지방광역시의 공실률은 최근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형 오피스(전문건설공제조합, 사학연금부산회관 등)의 신규 공급이 늘어난 부산은 상승세 •임대료의 경우, 공실률이 낮은 대구와 광주, 대전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산과 울산은 하락



주: 연면적 3,3000m² 이상의 오피스, 주용도 업무시설 자료: 교보리얼코



주: 연면적 3,3000m² 이상의 오피스, 주용도 업무시설 자료: 교보리얼코

[상가]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지속되며 상가 거래 크게 증가

■ 2021년 상반기 전국 상가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 2015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지역별로는 수도권 상가 거래가 크게 늘어 실거래 정보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약 2.3만건)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상가 거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57.9% 증가
 - 상가유형별¹로는 금년 상반기 중 집합상가 2.7만건, 일반상가 1.3만건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각각 전년동기대비 38.5%, 34.9% 증가

그림 31| 지역별 상가 거래량 추이 - 수도권(좌) ■ 5대광역시(좌) (천건) 기타지방(좌) ◆ ◆ ◆ ◆ ◆ 수도권 비중(우) 50 55 40 19.0 10.4 50 10,2 30 8.3 8.8 7.6 45 20 5.3 40 21.5 20.7 20.7 10 35 15.1H '16.1H '17.1H '18.1H '19.1H '20.1H '21.1H

주: 지분거래 제외, 상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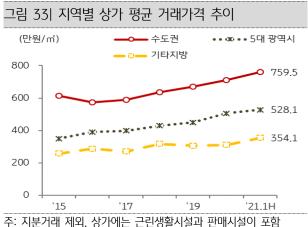
그림 321 상가 유형별 거래량 추이 (천건) - 일반 ■ 집합 50 40 30 28.8 27.5 26.8 25.7 21.2 20 199 192 10

주: 지분거래 제외, 상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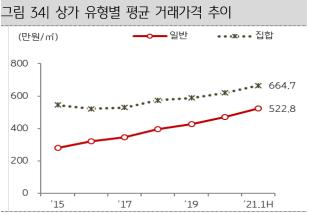
'15.1H '16.1H '17.1H '18.1H '19.1H '20.1H '21.1H

■ 수도권, 일반상가를 중심으로 평균 거래가격 상승 흐름 지속

- 전년말대비 평균 거래가격 상승률은 기타지방, 수도권, 5개광역시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가 유형별로는 일반상가가 집합상가 대비 높은 상승률 기록
 -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률 개선과 단계별 일상 회복 추진에 대한 기대로 당분간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 지분거래 제외, 상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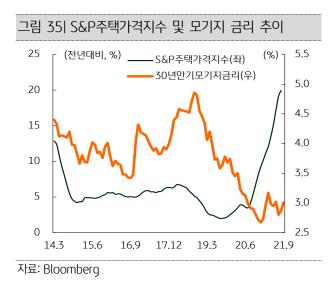
주: 지분거래 제외, 상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 분석

그 일반상가는 건물 전체를 1인(공동)이 소유한 상가를 말하며 집합상가는 건물 내 각 공간에 대한 구분 소유가 가능한 상가를 말함

[미국 주택시장] 주택가격 지속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의 공급대책 제시

■ 최근 주택가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거래시장은 빠르게 위축

- 2021년 7월 S&P 주택가격지수는 272.4로 전년동월대비 19.9% 상승
- 8월 기존주택 판매건수는 588만채. 신규주택 74만채로 전월대비 각각 2% 감소. 1.5% 증가
 - 주택가격 급등으로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래시장은 다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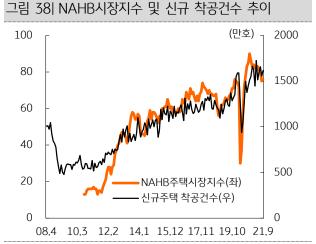


■ 미국 정부는 향후 3년간 주택 10만채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급 효과는 미미

- 바이든 정부는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 촉진, 조립식 주택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10만호를 3년 내 공급하기로 발표
 - •미국 가구의 1/3이 월세로 거주하는데다 상당수가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적
 - •하지만 주택 부족 물량이 약 680만호로 추정되는데 반해 계획물량은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







자료: Bloomberg

[호주 주택시장]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심사기준 강화

■ 저금리 및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호주 주택가격은 1년간 약 20% 상승

- 최저금리 수준 진입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 확대,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동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은 급등
 - •코어로직(CoreLogic)에 따르면 호주의 총 주택 가치는 약 9.1조 달러로 최고치 기록





자료: CoreLo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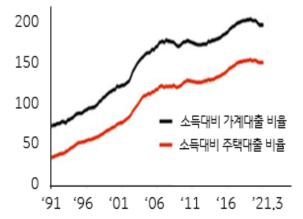
■ 호주 정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을 제시

- 건전성감독청(APRA)은 지난 10.6일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강화 방침을 통보
 - APRA에 따르면 소득대비 부채가 6배 이상인 신규 모기지론의 비중이 올해 6월 들어 약 22%(2020년 16%)를 기록하며 우려 증가
 -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여 대출금 가능 한도는 평균 5% 감소될 것으로 예상



자료: CoreLogic, APRA

그림 42]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비율



자료: CoreLogic, APRA

FOCUS ISSUE

지식산업센터 시장 동향 및 전망2

세빌스코리아 이사 류강민

1.공급 동향

-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과 건축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는 반면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존재
 - O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³
 - 지식산업센터는 1988년 2월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장한 아파트형 공장을 2010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꿔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
 - O 입주허용 업종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입지에 따라 입주가능한 지원시설 종류와 지 원시설의 건축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 반면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자에겐 공적자금 대출 혜택이 주어지며, 일몰 시기인 2022 년말까지 시행사와 수분양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이 존재
-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
 - 2021년 8월 기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지식산업센터를 바탕으로 재구성⁴한 지식산업센터 의 공급면적은 총 3,492만m²이며, 이중 87.8%가 수도권에 입지
 - 2000년 초에는 서울이 경기 지역 보다 공급면적이 많았으나, 2021년 8월 현재에는 경기 지역이 1,641만㎡(4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서울이 1,192만㎡(34.1%)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급면적의 80% 이상이 집중
 - 연간 증가율은 2003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으로 2014년 5.4%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 승하며 2017년 부터는 10% 전후의 증가율을 유지
 - 규모별 지식산업센터수는 2021년 8월 현재 5천평 미만의 소형의 비중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형(1만평 이상)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이 늘며 소형 비중은 감소세

² 본 자료는 외부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KB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

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⁴ 자료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면적과 준공연도 등의 정보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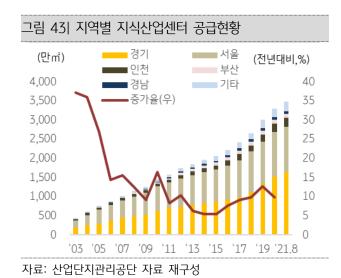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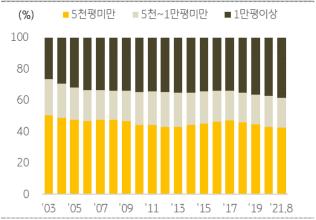


그림 441 전국 규모별 지식산업센터수 비중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 [서울] 전통적인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인 금천구, 구로구 비중 감소하고 신규 입지인 성동구, 송파구 비중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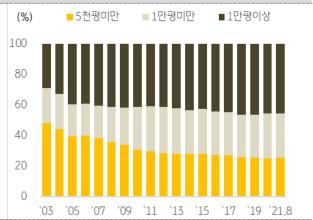
- 디지털산업단지가 있는 금천구와 구로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성동구, 영등포 구, 송파구, 강서구 순으로 입지하고 있음
 - 2021년 8월 현재 상위 6구(금천, 구로, 성동, 영등포, 송파, 강서)에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97%가 집 중되어 편향된 입지 분포를 보임
- O 연도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금천구와 구로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지로 각광받았으나 최근에는 성동구, 송파구의가 공급이 늘면서 새로운 입지로 부상하고 있음
 - 금천구 비중은 2010년 48.5%를 고점으로 2021년 8월 42.0%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 38.5%까지 증가하였던 구로구 비중은 17.1% 수준으로 감소
 - 2000년대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성동구 비중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송파구는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새로운 지식산업센터 입지로 주목
 - 건축연한별로는 10년 이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통적인 밀집 지역인 금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35%, 16%로 비교적 비중이 낮은 반면 신흥 밀집 지역인 성동구, 송파구, 강서구는 65%, 90%, 6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O 규모별 공급 현황은 1만평 이상(대형), 5천~1만평 미만(중형), 5천평 미만(소형) 순으로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
 - 2000년대 초까지는 소형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5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신규 공급이 늘며 비중이 크게 증가
 - 전국의 경우 소형 지식산업센터가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의 경우 대형, 중형, 소형 순으로 비중이 높음





20

그림 461 서울 규모별 지식산업센터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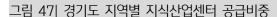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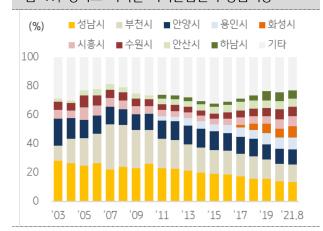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 [경기] 성남을 제외한 전통적 입지지역 비중은 감소하고, 용인, 화성, 하남 등 신규 지역 비중 증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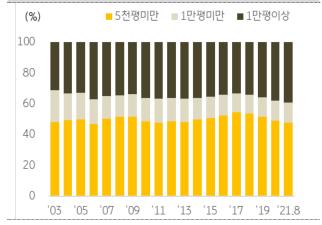
- 2021년 8월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성남이 가장 높은 비중(13.4%)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천(12.2%), 안양(10.4%), 용인(8.3%), 화성(7.7%) 순으로 나타남
 - 경기 지역의 경우 서울과 달리 성남 비중이 높지 않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 접근성 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O 연도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성남, 부천, 안양이 전통적인 지식산업센터 입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용인, 화성, 안산, 하남이 부상하는 추세
 - 용인, 화성, 하남은 2010년 이전까지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신규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기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 건축연한별로는 10년 이내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비중은 성남과 부천이 각각 25%, 2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용인, 화성, 시흥, 안산, 하남은 60% 이상을 차지
- O 규모별 지식산업센터 비중은 소형, 대형, 중형 순으로 높았으며, 2018년 들어서야 대형 지식산 업센터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서울과 다른 규모별 분포를 보임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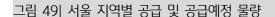
그림 481 경기도 규모별 지식산업센터 공급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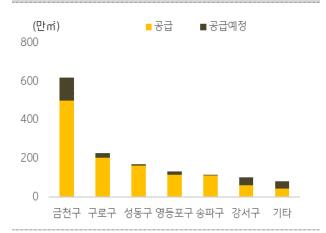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공급예정]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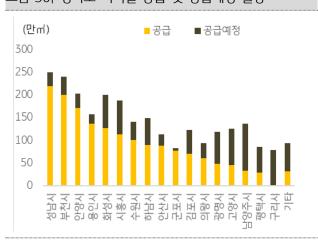
- 전국적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착공 중인 지식산업센터 공급예정 물량⁵은 현재까지 공급 면적의 약 43% 수준
 - 해당 물량이 3년간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연 10%대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 공급예정 물량 중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보다는 경기 지역에 공급이 집중
 - 경기 지역 공급예정 물량은 현재까지 공급 면적의 57%로 전국 43%보다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공급 예정물량 비율은 21% 수준
- O 서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상위 6구(금천, 구로, 성동, 영등포, 송파, 강서) 중 금천구와 강서구의 공급예정 물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금천구는 공급면적 대비 공급예정 물량 비율이 24%로 서울 전체 21%보다 높은 수준이며, 강서구는 마곡 개발로 공급면적 대비 62% 수준의 신규 공급이 예상
- 경기 지역은 기존 공급이 많은 지역보다 공급이 많지 않았던 지역에 공급 예정 물량이 집중되면 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지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성남, 부천, 안양, 용인 등은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이었지만 공급예정 물량은 공급면적 대비 20% 이내로 나타나 경기 전체 비율(57%)보다 낮음
 - 반면에 화성, 시흥, 수원, 하남 등 최근 공급이 집중되었던 지역과 기존 공급이 많지 않았던 김포, 의왕, 광명, 고양, 남양주, 평택, 구리에 공급예정 물량이 집중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그림 5이 경기도 지역별 공급 및 공급예정 물량



자료: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재구성

⁵ 공급예정 물량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자료에 건축인허가 자료를 추기하여 구성함 건축인허가 자료에 포함된 공장의 경우 일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명에 지식산업센터로 표기된 자료를 공급예정 물량으로 고려함

2.수요 동향

■ 서울의 경우 전통적인 입지 대신 신규 입지에서 수요가 증가

- O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많은 상위 6개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성동구, 송파구 등 신규 입지의 종사자 비중이 증가
 - 2007년, 2013년, 2019년의 과거 3개년간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에서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종사자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금천구의 비중은 정체
 - 특히 구로구 종사자 비중은 2013년 7.8%에서 2019년 7.3%로 감소하였으며 영등포구는 2007년 7.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6.7% 수준
- O 반면에 신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성동구, 송파구, 강서구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모두 전통적인 입지에서 신규 입지로 이동하는 추세
 - 송파구 종사자 비중은 2013년 3.9%에서 2019년 5.6%로 가장 큰 폭(1.6%p)의 증가를 보였고, 강 서구와 성동구 또한 각각 0.8%p, 0.7%p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인 입지인 구로구 및 금천구의 수요 비중 감소보다 신규 입지의 수요 비중 증가가 더 크게 나타 나고 있음

표 31 서울	표 31 서울 중소기업 종사자수								
지역		수저사종			비중			증감	
시크	2007년	2013년	2019년	2007년	2013년	2019년	'13년-'07년	'19년-'13년	
합계	683,576	718,181	795,803	100.0%	100.0%	100.0%			
강서구	12,895	14,870	23,160	1.9%	2.1%	2.9%	0.2%p	0.8%p	
구로구	49,710	56,355	57,954	7.3%	7.8%	7.3%	0.6%p	−0.6%p	
금천구	64,561	86,605	95,924	9.4%	12.1%	12.1%	2.6%p	0.0%p	
성동구	35,352	38,967	49,054	5.2%	5.4%	6.2%	0.3%p	0.7%p	
송파구	29,952	28,212	44,381	4.4%	3.9%	5.6%	−0.5%p	1.6%p	
영등포구	50,896	51,669	53,612	7.4%	7.2%	6.7%	−0.3%p	−0.5%p	

주: 종사자수는 제조업, 출판/영상/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만 해당

자료: 통계청

■ 경기도의 경우도 전통적인 입지 대신 신규 입지의 수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O 전통적인 입지인 부천, 안양의 종사자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공급지인 용인, 화성, 하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성남은 전통적인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 공급이 많지 않았던 시흥과 안산은 종사자수 비중이 감소
 -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자족성과 강남과의 양호한 접근성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분당, 판교 오피스 공실률이 1%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음

표 41 경기도 중소기업 종사자수									
지역		수저사종			비중		<u> </u>	증감	
시크	2007년	2013년	2019년	2007년	2013년	2019년	'13년-'07년	'19년-'13년	
합계	918,630	1,106,594	1,297,440	100.0%	100.0%	100.0%			
부천시	69,202	75,242	73,729	7.5%	6.8%	5.7%	−0.7%p	−1.1%p	
성남시	53,058	74,195	91,979	5.8%	6.7%	7.1%	0.9%р	0.4%p	
수원시	32,275	39,128	48,822	3.5%	3.5%	3.8%	0.0%p	0.2%p	
시흥시	79,252	81,999	87,558	8.6%	7.4%	6.7%	−1.2%p	−0.7%p	
안산시	97,162	114,047	109,676	10.6%	10.3%	8.5%	−0.3%p	−1.9%p	
안양시	43,082	51,534	59,065	4.7%	4.7%	4.6%	0.0%p	-0.1%p	
용인시	39,281	45,765	59,713	4.3%	4.1%	4.6%	−0.1%p	0.5%p	
하남시	7,807	9,798	12,345	0.8%	0.9%	1.0%	0.0%p	0.1%p	
화성시	102,198	145,468	188,249	11.1%	13.1%	14.5%	2.0%p	1.4%p	

주: 종사자수는 제조업, 출판/영상/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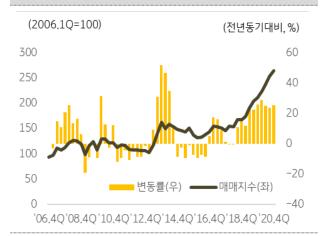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가격 동향

■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은 2018년 3분기 이후 높은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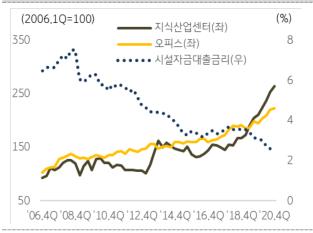
- O 2013년 8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개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임대 제한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
 -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3분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3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하였으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가격 정체 및 하락
- O 최근 저금리로 인한 높은 유동성과 주택 규제 및 오피스 가격의 높은 상승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2018년 3분기부터 높은 가격 상승세를 시현
 -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은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상관계수 -0.73), 최근 1년간의 가격상승률은(26%)은 같은 기간의 오피스 가격상승률(12%)보다 높은 수준
- O 2021년 9월, 민주당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추가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 존재
 - 개정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준공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와 전매알선, 임차인의 전대(재임차)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

그림 511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지수



자료: 한국지역개발연구소

그림 521 서울 지식산업센터/오피스 매매가격지수 비교



자료: 한국지역개발연구소, IGIS Research, 한국은행

4.시장전망

■ 향후 지식산업센터 신규 공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O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신규 공급이 예정되면서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 O 서울은 신규 공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천구의 경우 공급 대비 공급예정 물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차인 확보 문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신규 공급의 증가로 임차인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역간 선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

- O 기존에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역은 건물 노후도 증가로 임차인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전과 달리 지식산업센터 공급 지역이 확대되면서 선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
- O 수요 보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공실 등 차이가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연 1.3%, 경기 지역은 연 2.9% 증가하는데 그쳐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할 것

■ 신규 공급 증가로 인한 공실 문제와 금리 인상, 투자규제 움직임으로 가격 불안정성 존재

○ 과거 정책 완화와 저금리와 같은 투자 환경이 가격 변동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가 가격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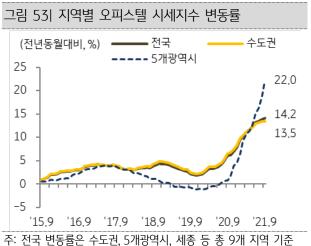
KB 오피스텔 통계

오피스텔 매매/임대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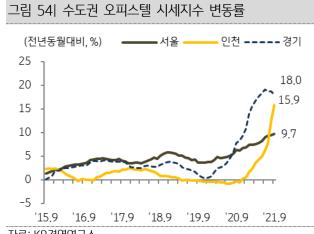
[오피스텔 매매]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 확대 흐름 지속

■ 9월 전국 오피스텔 시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2% 상승한 122.2를 기록

- 지역별 시세지수는 수도권이 전년동월대비 13.5%, 5개광역시가 22.0% 상승
 - 수도권에서는 인천지역 오피스텔 시세지수가 전월대비 3.4% 상승하여 서울(1.1%), 경기 (1.3%)보다 높은 상승률을 시현



주: 전국 변동률은 수도권, 5개광역시, 세종 등 총 9개 지역 기준 자료: KB경영연구소



자료: KB경영연구소

■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 중심의 오피스텔 가격 상승 흐름 지속

- 서울 서남권 오피스텔 시세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3.9% 상승하며 가격 상승세를 주도
 - 9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천6백만원 정도 상 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평균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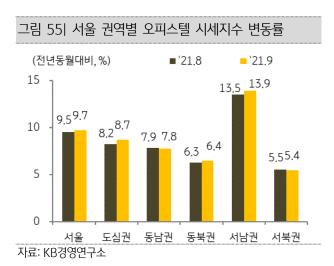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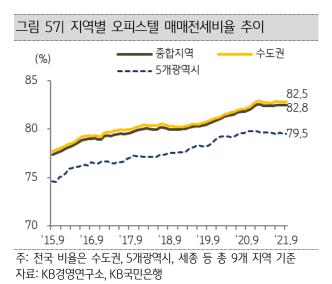
그림 56 지역별 오피스텔 매매 일반거래가 평균 (억원) '20 9 219 4 2.7 2.3 2.6 2.3 2.6 2.7 3 2.2 2.0 1.6 1.3 1.6 2 1 0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5개 경기 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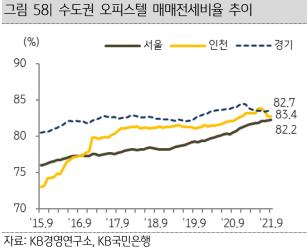
주: 전국 평균은 수도권, 5개광역시, 세종 등 총 9개 지역 기준 자료: KB경영연구소, KB국민은행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 매매전세비율 보합, 임대수익률은 하락세 지속

■ 9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전세비율은 지난달과 동일한 82.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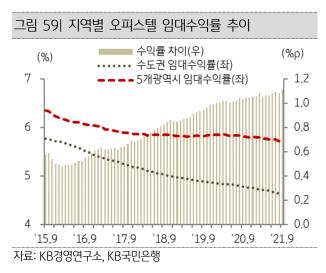
-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 상승세도 지속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오피스텔 매매전세비율은 보합 흐름을 유지
 - •9월 기준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0억원. 수도권 2.1억원. 5개광역시 1.3억원 수준 이며 전년동월대비 1~2천만원 정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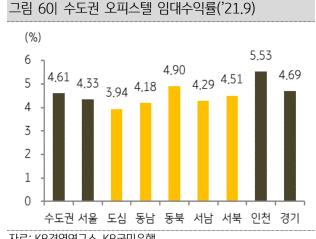




■ 매매가격 상승에도 월세가격 변동 크지 않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하락세 지속

- 9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4.74%, 수도권 4.61%, 5개광역시 5.72%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과 5개광역시 수익률 차이는 전월대비 소폭 확대
 - 수도권 내 모든 지역에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난달 보다 하락하였으며, 가격상승률이 가 장 높았던 인천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자료: KB경영연구소, KB국민은행

[2021년 9월 KB 오피스텔 통계]

■ 시세지수

*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하는 오피스텔 시세 자료를 활용해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정한 지수

지역 구분		시세지수(2019.1=100)		증감율(%)			
		'21.9월	'21.8월	전월비	전년말비	젼년동월비	
종합지	역	122.2	120.4	1.43	11.31	14.17	
수도권		122.2	120.6	1.32	10.70	13.48	
5개광역	역시	122.2	119.0	2.66	18.22	21.98	
서울		118.8	117.5	1.06	7.44	9.71	
	도심권	115.3	114.3	0.90	6.99	8.71	
	동남권	114.8	113.6	1.03	6.08	7.78	
	동북권	111.2	110.8	0.36	4.93	6.45	
	서남권	128.8	126.8	1.58	10.27	13.90	
	서북권	110.0	109.8	0.17	4.58	5.44	
인천		115.3	111.5	3.45	15.08	15.90	
경기		127.1	125.5	1.34	14.24	17.97	

■ 매매 및 전세일반거래가

* KB 오피스텔 시세 매매(전세) 일반거래가의 세대수 가중 평균값

지역		매매일반거래	가 평균(만원)	전세일반거래가 평균(만원)		
		'21.9월	'21.8월	'21.9월	'21.8월	
종합지	[역	26,169	25,808	19,791	19,588	
수도권	[27,021	26,685	20,680	20,463	
5개광(역시	19,832	19,298	13,050	12,989	
서울		28,886	28,625	22,138	21,985	
	도심권	36,836	36,507	26,708	26,485	
	동남권	30,751	30,607	23,742	23,688	
	동북권	19,343	19,265	15,260	15,211	
	서남권	30,651	30,188	23,209	22,969	
	서북권	23,943	23,891	19,272	19,138	
인천		16,239	15,591	13,070	12,545	
경기		27,377	26,991	20,782	20,536	

■ 매매전세비율

* KB 오피스텔 시세로 산정한 단지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의 세대수 가중 평균값

지역 구분		매매전세비율(%)		증감(%p)		
		'21.9월	'21.8월	전월 대비	전년말 대비	전년동월 대비
종합지	역	82.5	82.5	-0.02	-0.05	0.52
수도권		82.8	82.8	-0.03	-0.04	0.60
5개광역	역시	79.5	79.5	0.03	-0.21	-0.21
서울		82.2	82.2	0.02	0.95	1.74
	도심권	75.5	75.6	-0.10	1.04	1.06
	동남권	81.4	81.4	0.04	0.54	1.25
	동북권	79.0	79.0	0.01	0.41	0.60
	서남권	84.5	84.6	-0.14	0.84	2.00
	서북권	85.2	84.8	0.45	2.44	2.72
인천		82.7	82.8	0.00	-0.09	0.65
경기		83.4	83.5	-0.09	-1.12	-0.57

■ 임대수익률

* 임대수익률(연이율)은 '{월세가격 x 12개월/(매매 일반거래가 - 월세 보증금)} x 100'의 세대수 가중 평균값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 매입 후 임대 시 기대되는 수익률을 의미

지역 구분		임대수익률(%)		증감(%p)		
		'21.9월	'21.8월	전월 대비	전년말 대비	전년동월 대비
종합지	역	4.74	4.76	-0.03	-0.14	-0.16
수도권		4.61	4.63	-0.03	-0.14	-0.17
5개광역	역시	5.72	5.71	0.01	-0.08	-0.09
서울		4.33	4.35	-0.02	-0.09	-0.11
	도심권	3.94	3.96	-0.02	-0.14	-0.18
	동남권	4.18	4.21	-0.03	-0.09	-0.11
	동북권	4.90	4.91	-0.01	-0.12	-0.15
	서남권	4.29	4.31	-0.02	-0.09	-0.10
	서북권	4.51	4.51	0.00	0.02	0.01
인천		5.53	5.61	-0.08	-0.31	-0.36
경기		4.69	4.72	-0.03	-0.20	-0.23



■ KB 오피스텔 통계 개요

구분	내용					
기초 자료	KB 오피스텔시세조사결과(매월 15일이 포함된주좌한시세지료활용)					
작성 주기	- 唱					
작성 기간	2011년 1월부터					
작성 범위	수도권, 5개8역시, 세종 등총 9개 지역 대상					
	전국 종합, 수도권 5개명역시, 서울, 서울 5개 권역, 인천, 경기					
	전국 종합(9):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도권(3): 서울, 인천, 경기					
	5개8역시(5):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공표 범위	서울 도심권(3):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 동남권(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 동북권(8):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 서남권(7):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 서북권(3):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공표내용	사세자수, 마매 일반가라가, 대에 일반가라가, 매매전세비율, 임대수익률					
	시세자수=비교시점시세총액/기준시점시세총액 x 100(2019년1월=100.0)					
산출방식	매매, 전세 일반거래가: (단지별 매매, 전세 일반가 x 세대수 / 지역별 세대수), 세대수 가중 평균 가격					
년 2 0 기	매전세월: (단지별 (전세7격 / 매매7격 비율) x 세대수 / 지역별세대수), 세대수 가중 평균 비율					
	임대수익률(연이율): (월세가 x 12개월 / (마매 일반가라가 -월세보증금)) x 100의 세대수 가중 평균 수익률					

※ KB 오피스텔 시세지수

- KB 오피스텔 시세 하한가, 일반거래가, 상한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당 월 시세총액(비교시세총액)을 기준월 시세총액(기준시세총액)으로 나눈 값을 지수로 산출
 - 조사 대상 추가와 제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지수 산출 시 조사 대상 변동에 따른 시세총액 증가분과 감소분을 기준시세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

■ 결과 공표

- O 매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홈페이지(www.kbfq.com/kbresearch)를 통해 발표
 - 보고서(<월간 KB부동산시장 리뷰> 내 오피스텔 시장 동향)와 시계열 자료 제공

MEMO